

# 책들 사이의 대화

가장 이상적인 도서관은 어떤 것인가. 공공도서관이 370개소가 넘고 각 대학마다 위용을 자랑하는 번듯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이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제서야 나는, 서책이란 드물지 않게 다른 서책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말하자면 서책끼리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문득 장서관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면 장서관이란 수세기에 걸쳐 음울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곳. 이 양피지와 저 양피지가 해독할 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곳.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는 정복되지 않는 막강한 권력자이며 살아있는 존재. 만든 자, 옮겨 쓴 자가 죽어도 고스란히 살아남는 수많은 비밀의 보고인 셈이었다.”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대를 이루고 기호와 기호, 진리와 진리가 이어지는 경로가 보여야 도서관의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다.**

움베르토 에코의 베스트셀러 소설 《장미의 이름》의 1인칭 화자인 아드소의 말이다. 가장 이상적인 도서관의 단서를 제공하는 이 말은 도서관의 위용이나 장서의 수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근본적인 기능인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장서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암시한다.

즉 현명한 눈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를 이루어 기호와 기호, 진리와 진리가 이어지는 경로가 보여야 가장 이상적인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다는 뜻이리라. 구색맞추기식으로 책을 구입해 진열해 놓는 데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은 책의 위력과 효용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문화비평가 김종엽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저서 《웃음의 해석학, 행복의 정치학》(한나래) 속에 포함된 〈환멸의 도서관〉이라는 소론을 통해 위와 같은 도서관문화의 부재를 대학도서관의 예를 들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벤야민의 《독일 비극의 기원》을 읽고서, 멜랑콜리(melancholy) 개념에 대한 연구의 필요를 느껴서 파노프스키의 저작으로 나아가려고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하면, 벌써 길은 막히고 만다. 그러니 로버트 버튼의 《멜랑콜리의 해부》는 꿈도 꿀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젊은 문헌정보학자이자 대학도서관 사서인 이세열씨가 서기 1세기 말 간행된 중국 역사서 《한서》 중에서 각종 서적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부분인 〈예문지〉를 국내 최초로 완역 출간한 사실은 고무적이다. 《한서예문지》(자유문고)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한자문화권 최초로 씌어진 도서분류법에 관한 책으로 동양권 ‘도서목록학’의 전범이 되고 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한시대까지 발간된 서책 1만3천여권을 단순히 성격을 분류하는데 그치지 않고 분야별 흐름에 맞추어 정리한 이 책이 이제서야 그것도 한 젊은 사서의 손에 의해 완역되었다는 사실은 다소 상징적이면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보다는 ‘공부방’에 더욱 가깝게 활용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원인도 이것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 출판저널

통권 제174호/1995년 8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철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료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료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502호/전화 733-3135(대)/팩시 739-8791



## 편집부 경력 사원 모집

# 정신세계사에서 같이 일합시다

**정신세계사는 파란색만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세계사는 10년 넘게 한 우물만을 파 왔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한 가지 색깔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세계’라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같은 파란색이라 해도 수많은 색이 있을 수 있듯 ‘정신세계’ 속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편집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들 못지 않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왕좌왕하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파란색을 고집하면서 좀 색다른 파란색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신세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해 주십시오.**

경력 1년 이상, 외국어와 컴퓨터를 잘 할수록 좋고, 되도록 나이는 서른을 넘지 않고, 한 군데 오래 근무할 생각이 있는 사람. 이런 조건에 맞는 분이면, 사진이 붙은 이력서 1매, 자기소개서 1매(A4 1면), 임의의 정신세계사 발행도서 1권에 대한 독후감 1매(A4 1면), 자신이 주된 역할을 해서 만든 편집물 1점을 오는 8월 25일까지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서류를 검토하여 면접할 의사가 있는 분께만 8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봉에 ‘입사지원 서류’라고 쓰시고 문이나 직접 방문은 자제하셔서 저희 시간을 아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